

# 광산구 5700억원대 구금고 유치 경쟁 치열

### 농협·국민은행·광주은행 설명회 참여

### 19일 제안서 접수, 24일 심의위, 다음달 말 최종 결정

광주 광산구의 5700억원대 구금고 유치를 놓고 일선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12월말 계약이 완료되는 광산구 구금고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농협과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광산구는 이들 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오는 19일 제안서 접수가 끝나면 24일 평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금고 운영기관을 발표할

다는 방침이다.

이번 광산구 구금고 예산액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가 5585억원이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2금고는 90억원의 기금을 맡게 된다.

하지만 구금고 심의가 보류밖에 남지 않다 보니 해당 금융기관들은 평가를 맡게 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정성평가(비례량 평가)가 관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금융기관 관계자는 "진본이 있는 사람

들을 접촉, 구금고 계약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결정적인 만큼 지역내 우호 여련형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구금고 선정의 경우 평가 기준 배점이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정량평가(정해진 기준)는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들이 사전 제안한 예금금리와 지역협력사업 출연금액 등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정성평가(비례량 평가)가 관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제안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심사해 순위에 따라 1금고와 2금고를 지정했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올해에는 1금고와 2금고를 각각 나누어 심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1금고와 2금고를 통합하여 심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운영금액이 많은 1금고가 금리나 지역협력 사업비를 2금고 보다 낮게 제시하고도 선정되는 폐단이 발생했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 정성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기준을 바꾼 만큼 참여업체들이 제시하는 예금금리와 지역협력사업 금액 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여행 즐기고 경품도 챙기세요

### 전남도 '남도한바퀴' 이용객 다음달까지 고객감사 대잔치

전남도는 광역관광버스인 '남도한바퀴' 이용객들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두달간 고객감사 대잔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대잔치는 2번 이상 탑승한 고객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모바일 스탬프 모으기, 남도한바퀴 이용후기 올리기, 여행주간 탑승자 선물 증정, 3만 번째 고객 특별 선물 지급, 뮤지컬 티켓 할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모바일 스탬프 모으기는 '축제 스탬프 투어' 앱을 내려받아 버스마다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해 스탬프를 얻는 방식이다. 스탬프 2개를 모으면 5000원 상당, 5개를 모으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뮤지컬 특별할인도 제공된다. 남도한바퀴 이용권(9900원)과 정상이 4만원인 코믹 뮤지

컬 '달동네 콤플렉스' 공연 티켓을 묶어 1만9900원에 판매, 남도한바퀴로 여행도 하고 뮤지컬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달동네 콤플렉스'는 12월30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공연 중이다.

한편, 남도한바퀴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2만6562명이 이용했다.

남도한바퀴는 단풍의 계절 가을을 맞아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특별상품과 천년고찰 삼사순례상품, 섬여행상품 등 26개의 다양한 상품으로 운영 중이다. 가을 신규상품인 고흥 마음치유여행, 구례·하동 지리산문학길, 강진-완도 역사문화여행은 45인승 버스에 평균 40명이 넘게 탑승할 만큼 인기다.

이용 요금은 일반상품 1인당 9900원, 수목비엔날레상품은 입장권을 포함해 1만2400원, 섬 상품은 1만9900원, 요트상품은 2만5000원이다. 노선 검색과 예약은 온라인(citytour.jeonnam.go.kr)과 전화(062-360-8502)로 가능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울상반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21.5% 채용

### 광주시, 대학·기관 첫 간담회

광주시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오는 2022년까지 총 채용 인원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방안을 지역대학, 이전공공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시는 8일 한전 KDN 소회의실 3층에서 열린 올해 첫 간담회를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등 5개 지역대학 취업팀장과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9개 공공기관 인사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대학생 이전공공기관 탐방 계획,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었지만 올해 3월 27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늘려 2022년부터는 이전 공공기관 총 채용 인원 30% 이상을 지역인재 채용으로 선발하도록 규정됐다.

의무 채용이 시작되는 올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의무대상 724명 중 156명(21.5%)을 채용해 이미 목표율 18.5%를 넘어섰다.

김병규 시 혁신도시담당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속 시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와 대학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인재들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3급 나주부시장에 위광환 한전 협력관 임명

나주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 증가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나주 부시장에 위광환(사진) 전남도 한국전력 협력관이 임명됐다.

전남도는 8일 위 부시장을 비롯해 부이사관과 서기관급 5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장흥 출신인 위 부시장은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도로교통과장·건설도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위 부시장의 자리인 한전 협력관에는

주순선 정책기획관이 지위승진했으며, 김병원 관광문화체육국장도 승진해 직무대리 꼬리표를 뒀다.

정책기획관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윤준호 서기관이 발탁됐다. 조재윤 나주부시장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파견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



금남로 추억의 테마거리 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추억의 테마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추억, 세대공감!'이란 주제로 개막한 제15회 충장축제에는 9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폐막식을 갖는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시 민선 7기 시민제안 '일자리·경제' 최다

### 시민 불편 1700건 해법 제시

광주시가 민선7기 들어 시민제안 17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일자리·경제가 가장 많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제안 100일 해법 제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민중심 시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 시장이 후보와 당선인

시절 온라인플랫폼 '광주행복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 불편과 정책제안 1779건에 대해 "취임 후 100일안에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대표성 있는 민원에 대해 각 실국장이 직접 해법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시민들과 간부공직자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생활불편-제안 1779건을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경제 분야 203건(11%), 문화

관광체육 분야 172건(10%), 복지건강 환경생태 분야 356건(20%), 도시재생 교통건설 분야 852건(48%), 일반행정 분야 139건(8%) 등이다. 이 중 64%는 수용됐고, 20%는 검토, 13%는 수용 불가, 3%는 답변이 불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이슈별로는 ▲지하철 2호선 299건 ▲도로 개설 정비 106건 ▲연제힐스테이트 송전탑 이전 87건 ▲신세계 특급호텔 유치 80건 ▲법률 주·정차와 공영주차장

75건 ▲전통시장 활성화 37건 ▲미세먼지 저감 대책 33건 ▲청년일자리 28건 ▲공원 청소와 시설물 정비 27건 ▲대인애술 야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25건 ▲일자리 창출 22건 ▲공교육(무상교육, 무상급식, 방과 후, 지역인재육성) 22건 등이다.

또 각화초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제안에 대해선 이 시장이 지난달 28일 각화초교를 찾아 '제1회 현장경청의 날'을 갖고 학생·학부모들과 소통하며 해결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전체 공용 와이파이설치 건에 대해선 향후 속도를 내 조기에 확대 설치를 완료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가을단풍 여행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가을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합니다

1. 정동진일출 · 설악산단풍 기차여행 · 무박 2일 10월 26일(금) **120,000원**
2. 제천 청풍호 · 도담삼봉 기차여행 · 당일 11월 03일(토) **85,000원**

### 정기열차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문경새재(옛길) · 월악산송계계곡 단풍여행 · 당일 10월 20일, 27일, 11월 3일 **95,000원**
2. 계룡산 갑사로 가는길 · 공산성 단풍여행 · 당일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11월 3일 **75,000원**
3. 남이섬 자유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4.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5. 서천 국립생태원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 섬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홍도 · 흑산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2. 울릉도 · 독도 여행 · 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3. 거문도 · 백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4. 백령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85,000원~**
5. 대마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70,000원~**

### 버스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인제 자작나무숲&곰배령 트레킹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80,000원~**
2. 울산 동해미행 버스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3. 고령 고분군 트레킹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4. 통영 동피랑 마을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70,000원**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